

설날 가정예배

예배부름 인 도 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 송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서로 만나 포옹하고, 반가운
정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
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
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갈등과 분
열이 가득한 세상에 화해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깨달
고, 미움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
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분열된 조국
이 평화를 이루고, 갈라진 민족이 부동켜안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
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다 같 이

성경봉독 신명기 31:7~8 말 은 이

말 씬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말 은 이

여행하기 전에 우리는 숙소를 예약하고, 옷도 준비하
고, 필요한 물건을 챙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챙긴다
고 해서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행 전에 무
엇보다 준비해야 할 것은 즐겁게 여행하고자 하는 마음
입니다. 오늘 주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과
함께 복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렵고 험난한 길들을
헤쳐 왔습니다. 이제 그는 허락된 삶을 마쳐야 할 시간
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
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서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①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잃
고 헤매며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
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알았기에 험난한 여정도 희망의 길, 행복의 길
이 되었습니다.

②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세상의 큰 나라와 군대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도우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③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은 그의 능력과 자질,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거주민들을 보면서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목적,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분명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혹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 때문에 또는 자신의 부족함과 준비되어있지 못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뒤를 따르셔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 송 …… 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

담임목사 강용규
 Rev. Kang Yongkyu